



**전개공, 혁신도시 기지저서 환경정화 활동**

전북개발공사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전주 혁신도시 기지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북개발공사는 11일 전북 전주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기지저 일원에서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기지저 주변을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환경정화에 나섰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최근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되며 ESG 경영 실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플로깅 활동을 통해 혁신도시 일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공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직접 가꾸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장수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은 11일 장수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함께,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약국 등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자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 진료, 돌보기 지원 같은 맞춤형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료봉사회가 참여해 양·한방 의료 봉사를 진행하였고,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에서 근골격계 질환관리, 디지털 안경원에서 검안과 돌보기도 함께 제공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산림조합, 화산 선도경영단지 산주협의회**

완주군립조합은 최근, 완주 화산 선도경영단지 내 특화인산물 재배단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주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화인산물 재배단지 산주들과 완주군산림조합 직원들이 참석해 재배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특화인산물의 효율적인 재배 기술과 품질 향상 방안, 안정적인 관료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주 간 정보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완주 화산 선도경영단지는 특화인산물재배단지, 조림 입도 신설사업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결론**

▲배정환(배음덕·최미아 씨 아들)군·노환희(친절봉사회 부회장 노규동·김선옥 씨 딸)양= 일시: 13일 오전 11시 장소: 전주 전통시장

**시니어 디지털 일상 지원 강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전주에 호남 팝업 체험센터 개소**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SSDA)는 지난 10일 전주 삼성스토어 전주에서 'SSDA 호남 팝업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호남권 시니어를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AI 체험공간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에스원, 삼성전자판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호남 팝업 체험센터는 지난해 광주에서 운영된 호남권 체험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에 새롭게 조성됐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니어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디지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체험센터는 단순한 기기 체험 공간을 넘어 시니어가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키오스크 주문과 모바일 서비스 활용은 물론 AI 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올해 체험센터는 스마트홈 라이프존을 새롭게 강화했다. 스마트 가전과 AI 기반 생활기기, 스마트홈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시니어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생활 환경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 도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직업체험형 콘텐츠인 '쓰디365 편의점'을 운영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편의점 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무인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기반



매장 운영 과정을 경험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일지리와 사회참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체험기기, 커뮤니티 공간, 포토존 등을 마련해 시니어들이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형 디지털 체험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체험센터는 삼성전자판매와 협력해 삼성스토어 전주 공간에서 운영된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니어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공간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디지털 포용 실현 사례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행사는 내빈 차담회를 시작으로 SSDA 사업 소개, 쓰디봇 퍼포먼스, 개소 세리머니, 체험센터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웰컴존, 달링존, 스마트홈 라이프존, 직업체험존 등을 둘러보며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AI 체험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SSDA)는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행복하고 주체적인 디지털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수준과 생활 환경을 반영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디지털 교육, 디지털 체험센터 운영, 디지털 재능나눔, 디지털 튜터 양성, 취업연계형 심화교육 등을 통해 시니어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롯데백 전주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공헌 실천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10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일대에서 전북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주택관리공단이 함께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는 각 부서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벽면 페인트 작업과 노후 전등 교체 등을 진행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전주점 임직원체인 '실용 에이'도 행사에 동참해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천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주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사랑받는 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동문박마을 도시재생대학 개강식**

남원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8일 동문박마을 도시재생 대학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재생 대학은 동문박마을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각교실'과 'DIY목공취미' 2개 과정을 동문박마을(향교동, 동충동) 주민들 상대로 운영된다. 서각교실은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전통 목공예 프로그램이며, DIY목공취미 과정은 생활 목공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8회 진행된다. 동문박마을은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목공예 특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문의는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동문박마을팀(063-635-9398~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농기센터, 요천에 쏘가리 치어 방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최근, 남원을 대표 하는 하천인 요천에 쏘가리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남원 관내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량 종자이며, 전장 3m 이상으로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와 협력해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치어이다. 쏘가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급 토종 어종으로, 수질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지표종으로, 농어과의 육식성 민물고기지만 맛이 돼지고기처럼 좋다고 하여 수련(水豚)이라 불리기도 하며 맛있는 이는 별칭도 있을 만큼 식감이 좋고 담백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린다. 인기 때문에 한때 멸종위기를 맞았던 쏘가리는 지속적인 치어 방류로 점점 복원되고 있는 중이며, 전북 지역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어기로 18cm 이하의 어린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산 한동환 선생, 30년 서화 인생 담은 전시회 개최**

**16일까지 임실읍사무소 북카페서**

유산 한동환 작가 30년 서화 인생을 돌아보는 전시회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임실읍사무소 북카페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오공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뒤에도 97세의 나이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유산 한동환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작가가 시대 변화에 맞춰 한글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식의 서예와 가정교육자료를 엮어낸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막식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열렸으며, 지역 주민과 제자 가족들이 함께 자리해 작가의 예술 세계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시는 30년 동안 묵향의 길을 걸은 작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황혼기에 이르러 더욱 깊어진 삶의 철학과 예술적 기량을 담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작가의 삶과 기억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화합과 인연의 소중함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뜻도 함께 담았다. 전시 작품 가운데에는 흥법도 장군의 삶을 조명하는 작품과 가족 간 화합, 인간관계, 인생의 지혜 등 주제로 한 작품을 다수 선보인다. 오랜 세월 삶을 통하여 쌓아온 깊은 사색과 따뜻한 시선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 유산 한동환 작가는 전통 서예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한 글세대에 맞는 현대적 감성을 접목한 독창적인 미감을 추구해 왔다. 작품 속에는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단단히 이어



가고자 하는 마음과, 100세 가까운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조화롭게 담겨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작가가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가정교육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작가는 40년의 교육자 인생과 100년 가까운 부모로서의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녀 세대에 남겨야 할 삶의 유산이라 생각하며 작품을 담았다. 한편 유산 한동환 작가는 1927년 임실을 망전리에서 태어나 1992년 오공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했다. 이후 서예에 입문해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2회, 농업인 서예대전 8회 입선, 1994년 국전 입선 등의 성과를 남겼으며, 정음사 전국서화대전 초대작가와 전북도 서예협회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장 인수위, 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지난 10일,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K-컬처 중심도시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공약 연계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 문화관광 체육분야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남원 K-컬처 스포츠 조성사업 △웃찾기목공예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한편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춘향제 △광원투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제대학교 운영 △미래인재 육성사업 △유소년스포츠클럽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충모 당선인은 "남원은 춘향과 판소리, 광원투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라며 "이러한 전통문화 자산에 현대적 콘텐츠를 접목해 K-컬처를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와 관광은 남원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문화예술과 관광, 축제, 스포츠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개이 머뭇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12~14일 남원오피스포스트축제대회 개최**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세계 검도인들의 축제인 '2026 남원오피스포스트 국제검도대회 및 제34회 조병용선생 추모 검도대회'가 개최된다. 경기는 12일 해외 선수단 환영행사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13일에는 개회식과 개인전, 14일에는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